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19-10

www.mois.go.kr



2021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ontents

Ⅰ. 중소벤처기업부

1. 도입배경 6
2. 사무실 위치 7
3. 설계개요 및 도면 7
4. 주요특징 8
5. 추진과정 23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4

Ⅱ. 충청남도

1. 도입배경 30
2. 사무실 위치 31
3. 설계개요 및 도면 31
4. 주요특징 32
5. 추진과정 37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38

Ⅲ. 청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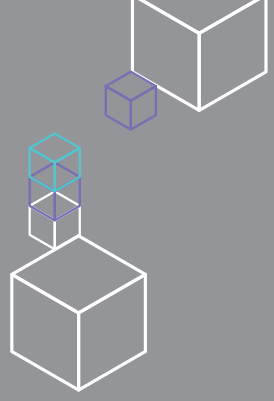
1. 도입배경 44
2. 사무실 위치 45
3. 설계개요 및 도면 45
4. 주요특징 47
5. 추진과정 49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0

Ⅳ. 국민연금공단

1. 도입배경 54
2. 사무실 위치 55
3. 설계개요 및 도면 55
4. 주요특징 56
5. 추진과정 67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68

Ⅴ. 국립과천과학관

1. 도입배경 72
2. 사무실 위치 72
3. 설계개요 및 도면 72
4. 주요특징 73
5. 추진과정 81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82



2021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I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공간 혁신 분야]

1 도입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신설('17.7.26) 된 부처로서, 출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품고 기존의 관행과 한계를 뛰어넘어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내 혁신을 이끌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대통령님 말씀)** 여러분 자신이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할 것을 당부합니다.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 발췌, '21.12.30)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정부 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부분 정부 부처가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로 '21년 7월 청사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1년 2월 중기부 장관으로 권칠승 장관이 취임하였다. 권칠승 장관은 취임사('21.2.28)에서 중기부가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스타트업처럼 공간혁신과 수평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정부내에서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높은 공간혁신 의지에 맞춰 세종 신청사를 혁신적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중기부 신청사의 공간혁신에 대한 장관 주요 활동사항

- **(관심·활동)** ▲임차청사 후보 건물 사전 답사(2.9), ▲민간건물 벤치마킹(3.12) ▲청사 조성공사 현장방문 2회(6.25, 7.9), ▲국 회의실 디자인 컨테스트 간담회(6.23) 및 시상식(8.12), ▲세종청사 출범 기념식(7.26)
- **(지시)** ① 청사 선정은 직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 ② 장관실 최소화하고, 유휴 공간의 사용방안 고민, ③ 직원들이 사무공간 조성에 함께할 수 있도록 회의실 컨테스트 개최, ④ 회의실 등 공용공간에 대한 디자인 및 명칭 공모전 개최, ⑤ 청사이전 완료 후에 휴게공간 가림막 설치 등 환경개선(3건)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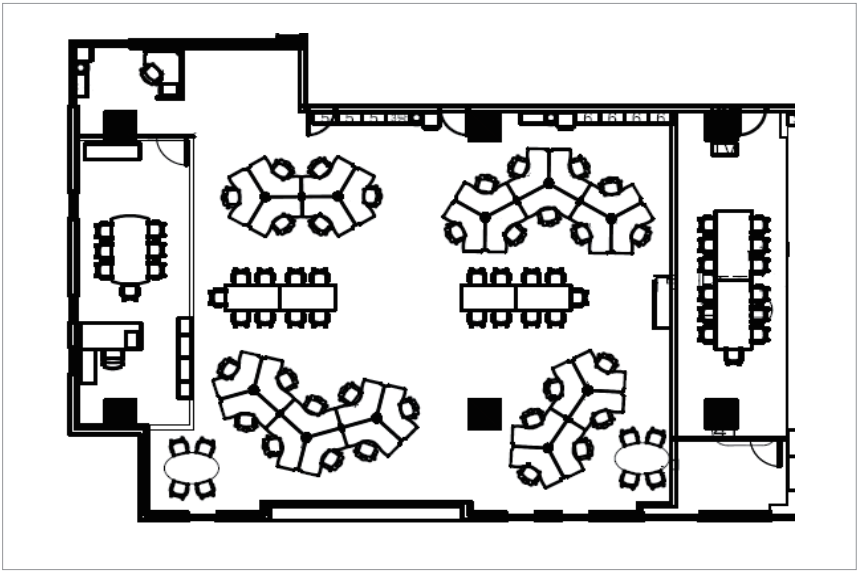
특히, 새롭게 조성된 청사는 사무공간이 단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조직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시작하였다. 젊고 혁신적인 중기부 이미지에 걸맞게 “혁신(Innovation)”과 “재미(Fun)”를 주제로 기존 관공서와는 다르게 다소 파격적으로 조성되었다.

2 사무실위치

- 사무실 위치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4~6층

3 설계개요

- 설계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9,345㎡(2,831평) / 4실 3단 47개과 588명
- 설계도면



4 주요특징

목표

수평적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과 **재미**가 있는 업무공간 조성

구축 방향

- 일과 재미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구성→ **창의력과 혁신** 추구
- 벤처·스타트업처럼 미래변화 대응→ **협업 및 소통공간 확대**
- 열린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촉진**
- **디지털 기반**의 고객공간 및 영상 회의실 제공 →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와 업무 효율성 개선

추진 과제

소통과 협력의 공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수평적인 공간
공간 활용 및 효율화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 디자인
	Dead Space를 활용한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대민 소통	민원인 전용 접견 및 회의 공간 마련
	방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복지 및 편의시설	수면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주차장, 폰 부스,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가. 개방형 소통·협력 공간 구축

-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
- 개인 공간을 줄이고, 직원들이 다수 이용 가능한 공용공간 확대
- 재택근무 확산 등 근무방식 변화에 따른 스마트 근무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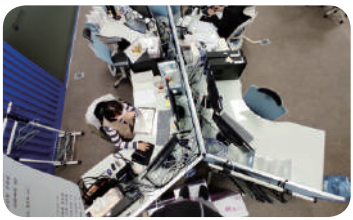
1) 사무공간 : 벌집형 책상으로 파티션과 칸막이 최소화

❶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무공간의 파티션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노력을 하였다. 우선 본부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단'의 사무공간 혁신을 시범 추진*하였다. 기존의 전형적인 정부 부처의 사무공간(높은 파티션과 사각형)이 아닌 '벌집형' 책상을 배치하여 부서 내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직원 간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사무집기의 재사용을 원칙, 새로 만드는 공간은 개방형으로 구축

|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의 개방형 사무공간 |



120° 벌집형 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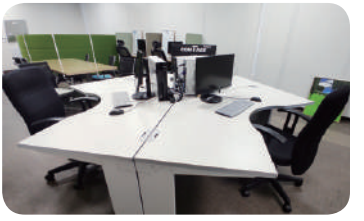


내부 연결 회의실

또한, 시범 추진한 벌집형 사무공간(스마트제조혁신단) 이외에 '과간 칸막이' 높이를 대폭 낮추었다. 국내 타과 직원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높은 칸막이를 옆과 직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추었다. 그리고, 과 내에서 회의 탁자를 중심으로 원형 좌석 배치를 통해 과 내 직원들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❷ 스마트 근무 환경 조성

개인 사유로 잠시 혼자 일하고 싶거나 몰입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 직원을 위해 집중업무 공간을 설치하는 한편,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사무공간을 마련해 스마트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청 출장직원, 산하기관 출장자 등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직원들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웹오피스[주] 환경 도입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 주) 웹오피스 개념 : 행정안전부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문서를 작성한 뒤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 접속해 보고-결재하는 시스템

2) 회의공간 : 직원이 직접 설계한 톡톡 튀는 회의실

회의공간 조성은 중기부내 각국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녹아있는 산물이다. 장관의 격려와 관심하에 각국 회의실은 각국의 비전과 개성을 담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획했다.

❶ 국별 비전과 개성이 담긴 펀(Fun)한 회의 공간

국 회의실 디자인 공모전은 세종청사로 오기 전('21.6월)부터 기획하였고, 국별로 컨셉이 있는 펀(Fun)한 회의실을 만들었다. 11개 실·국은 자체 공모전을 개최하여 회의실에 개성을 담고, 각각 개성 있는 이름을 부여했다. 창업국은 회의장 이름을 스타트업 + 집

터 두 개념을 결합한 '스타터(Starter)'로 작명했다. 컨셉은 국내외 저명한 창업가(ex, 스티브잡스 등)를 배경으로 꾸몄다. 기획조정실은 회의장 이름을 '레고레고'로 작명하였고, Let's go의 줄임말과 레고 블록이 결합한 이름이다.

실국	사진	의미
창업국		스타트업+집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원, 엔진의 시동을 거는 장치
기획조정실		Let's go Let's go의 줄임말 + 레고 블록 회의실의 특징인 레고 블록과 Let's go Let's go의 가보자! 라는 의미의 조합.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해보자는 의미입니다!!

❷ 다양한 크기와 특성에 맞는 공용회의실 조성

모든 회의실에는 백페인트글래스를 설치하고, 참여 인원과 회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크기·모양의 재미있고 특색 있는 회의실을 만들었다.

우선, 회의 인원과 성격에 따라 회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대회의실(1개) 이외에 중회의실과 소회의실로 구분하여 만들었다. 이전 대전청사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회의실이 세종청사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이 편안하게 타 실국 및 관련기관들과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대전청사	세종청사	증감
회의실 전체	5개소	23개소	증 18개소

그리고, 재미(Fun)를 결합한 다양한 회의장을 만들었다. “회의는 30분 이상을 금합니다” 컨셉으로 ‘그네 회의실’과 ‘스탠딩 회의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말에 일할 때 아이와 함께” 컨셉으로 ‘볼풀 회의실’, “심층적인 토의는 여기서” 컨셉으로 ‘좌식 회의실’을 만들었다.


볼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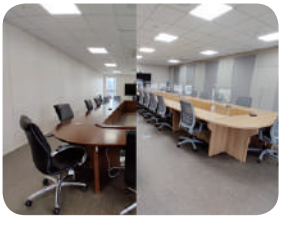

그네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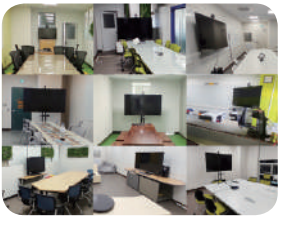

좌식회의실

❸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 및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위한 유연근무 방식이 일반화가 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부분 공용회의실과 국별 전용 회의실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민원실에도 영상회의실을 꾸려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 영상 회의실 현황

구분	대전청사	세종청사	증감
영상회의장비 구축	3개소	14개소	증 11개소

3) 우연한 만남이 가능한 휴게 공간



직원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층별 중앙에 직원 간 대면 소통이 원활하도록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건물 중심에서 양쪽으로 뻗은 빌딩 구조상 직원들은 중앙통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구조이다. 낭비될 수 있는 공간을 양쪽 직원들이 만날 수 있는 중앙휴게실로 만들었다.

특히,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직원들과 간부들의 이동이 많은 개방형 공간의 중앙휴게실을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선 차단용 가림막(인테리어)을 추가 보완 설치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나. 공간 활용 및 효율화

1) 여러 부서가 같이 쓰는 공유공간 확대

❶ “도서관이 살아 있다.!”도서관을 토론·공유공간으로 활용

이용이 거의 없었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고라를 설치하여 세미나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책장 칸막이를 설치하여 카페 같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였다.


도서관 전경


세미나 개최


휴게공간으로 활용

❷ 장관 집무실의 최소화, 소탈한 장관실!

장관부터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 장관의 전용 공간인 집무실을 대폭 축소하여 소탈하고 간소하게 구성하였다. 축소된 공간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회의실로 구성해 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장관 비서관 자리를 제일 앞쪽에 배치하고, 직급이 제일 낮은 직원일수록 뒤쪽에 배치하는 등 탈권위 문화를 장관실이 먼저 실천하고 있다.


장관비서실 구조 (비서실장 전면)

❸ 동아리 활동 공간 마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카페에 공간을 구획하여 책장으로 시선을 차단하였으며, 독서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아고라 등을 설치하였다.


동아리 활동공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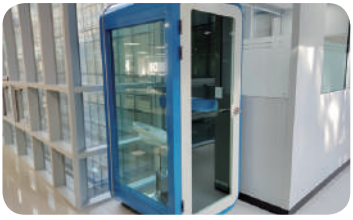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공간 2(아고라)

2) 칸막이 공간·복도 등 죽어 있는 공간(Dead Space) 재활용

❶ 쓸모없는 자투리 공간도 실용 공간으로 변신

직사각형 구조로 인해 건물 중간 Dead Space에 급 · 배수 시설을 설치해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탕비실(6개소)을 설치하고, 직원들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폰부스(6개소)를 설치하였다.


6층(2개소)


복도 폰부스

❷ 다목적 공간 사용 : 평소에는 탁구장, 행사시에는 대강당

공간은 많이 차지하나 사용이 적은 강당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평소에는 직원 건강을 위한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각종 행사 장소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들었다.


전체 전경

❸ 건물 옥상의 야외 휴게공간으로 재탄생

사용하지 않는 건물 옥상에 벤치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잠시나마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확 트인 전망과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옥상 한쪽에서 반대쪽까지 120m 길이로 업무 중간에 간단한 산책도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다. 대민 소통

-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민권접견실 및 민원인 전용 회의실 구축
- 비대면 민원 대응 등을 고려한 민원 전용 영상회의실 구축
-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세심한 편의시설 마련

1) 민원인 대기 공간·상담 공간 등 민원인 편의시설 마련

❶ 카페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카페형 민원 공간 마련

중기부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인 대기 및 접견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음료나 차를 마시며 업무를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카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딱딱한 관공서에 오는 느낌을 없애고, 아늑하고 편안하게 기다릴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다.


대기 및 접견 공간



민원실 전경

❷ 회의실 확인을 입구에서 바로 확인! 회의실 전용 키오스크 설치

민원인들의 회의실 이용 편의를 위해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사 출입구(4층)에서 곧바로 실시간으로 회의실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회의실 입구에 회의내용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구축하였다.


민원실(4층) 입구 회의실 종합안내판(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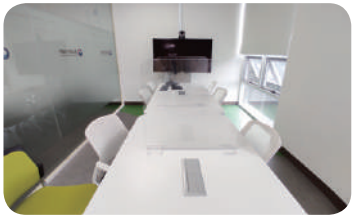


각 회의실 입구 안내 모니터

❸ 민원인에게 영상·대면 회의실을 개방하여 편의 제공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불편한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안 구역 밖에 있는 민원실에서 바로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에 별도 회의장(3곳)을 설치하였다. 최근 비대면 업무처리 확대 추세에 맞춰 민원 회의실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추었다.


회의실 바깥 전경


영상회의실 내부

2) 청사 방문 장애인, 노약자 편의를 위한 UD(User Design) 적용

❶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점자 안내판 설치

민원인 접견실에 민원인 전용 PC(시각장애인 겸용), 방음이 되는 투명한 재질의 폰 부스와 휴대폰 충전기, 양심 우산 등을 비치하여, 세심하게 민원인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방문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



민원인 PC (시각장애인 겸용)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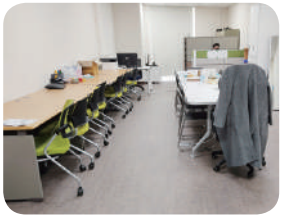
핸드폰 충전기



양심 우산

❷ 방호·구내식당 노동자 휴식공간

24시간 교대로 청사를 방호하는 보안 위탁 직원과 구내식당 ·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 별도 사무실과 휴게실을 제공하였다.


보안 · 안내 사무실


보안직원 휴게실


미화 직원 휴게실

라. 복지 공간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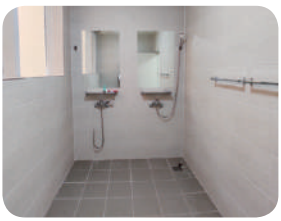
-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충분한 휴게공간 마련
-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1) 직원 체력증진 및 안락한 휴게공간 마련

❶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 운영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 별도의 샤워 시설과 인바디, 러닝머신·자전거 등 여러 운동기구가 있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으며, 행사를 위한 대강당은 평소에는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체력단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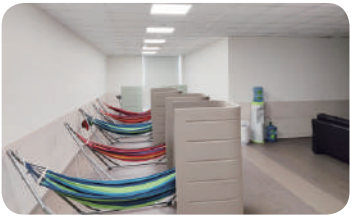

샤워실


인바디(체지방측정기)

❷ 남·여 휴게실 및 배려 공간 마련

상대적으로 고된 일과 야근이 잦은 중기부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로한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잠을 잘 수 있는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침대, 해먹, 안마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직원이 점심시간, 저녁 시간 등에 휴게실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또한, 여자 휴게실에는 커튼으로 가릴 수 있는 개인공간을 만들어 산모의 모유 수유 등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❸ 편안한 식사가 가능한 구내식당을 자체 설치·운영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내식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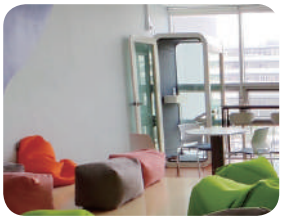


구내식당 입구

2) 쾌적한 근무환경 마련

❶ 폰부스

업무용·개인용 전화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방음이 되는 투명한 재질의 폰 부스를 총 14개소(층별 4개 이상)에 설치하였다.


휴게실


복도


북카페

❷ 민원인,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임차청사 선정 시 방문객과 민원인의 주차 편의 및 업무상 이용을 위해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 민간건물을 먼저 선정하였다.

* 주차장 확보 현황 : 총 422대
(중기부 전용 200대, 공용 222대)



❸ 중앙계단 활용 권장

계단 이용 활성화를 통해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직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계단에 건강정보 등을 표시하여 재미를 주었다.


5층 계단


6층 계단

❹ 자동 슬라이딩 도어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계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층 중앙계단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다.



❺ 화장실 이용 편의성 제고

근무 인력에 비해 화장실이 부족하고 협소함에 따라 남 · 여 화장실 각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내부에는 비데, 핸드타월,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6층 추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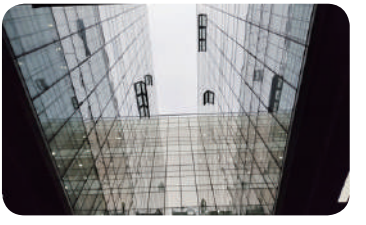
4층 추가설치



화장실 내부

❻ 자연채광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임차청사 선정 시 자연채광이 우수한 건물을 선정하였다.



5 추진과정

중기부는 '21.1.1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세종으로 청사 이전이 결정된 후 △청사 면적 확정('21.1월), △이전 예산(예비비) 확보('21.2월) 등 단계를 거쳐 세종 청사로 사용할 현 민간건물의 임차계약('21.5월)을 완료하였다.

혁신(Innovation)과 재미(Fun)를 주제로 신청사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세종이전기획단TF"를 구성하였다. 기획단은 다양한 연령과 직급이 포함되었고, 중기부 노조도 함께하는 등 전 직원 아이디어가 청사 혁신에 스며들도록 했다. 특히,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 아이디어(4월) 공모, 공용공간 명칭 공모*(6월), 국별 전용회의실 디자인 컨테스트 공모(6월) 등을 거쳐 회의장 이름부터 설계안이 마련('21.5월) 되었다.

* 공모결과: ① 대회의실: 중기마루(55%, 선정), 상생홀(15.9%), 자갈자갈(5.8%) 등
② 중회의실: 경청마루((25%, 선정), 보스방(22.2%), 혁신홀(15.9%) 등

| 직원 의견수렴 및 청사 이전 |


국별 회의실 디자인 컨테스트 시상(6월)


청사 현판 제막식(7월)

또한, 공간혁신을 선도하는 민간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하고, 좋은 사례를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서울의 위워크(wework), 공주의 애터미 등 다양한 혁신적인 민간기업을 방문하여 소통 공간과 개인공간이 직원 만족도에 주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발간하는 「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방적 민원 공간, 공간 활용 등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 세종 청사 설계를 위한 벤치마킹 |



애터미 (소통공간)


애터미 (개인공간)


구글 사무실

※ 애터미 : 직원들의 공간 만족도가 높은 회사로, '19년 공주시에 애터미파크 건립

이러한 과정, 즉 ❶기관장의 의지, ❷직원들의 아이디어 및 ❸선도적인 스타트업의 공간혁신 + 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라인 등이 결합되어 신청사 이전 세부계획이 마련되었고, '21년 7월 12일 세종으로의 청사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중기부 신청사는 "혁신(Innovation)"과 "재미(Fun)" 공간이다.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젊고 혁신적인 기관 이미지에 걸맞게 조성되었다.

사무공간은 부서별, 직원 간 칸막이를 최대한 낮추었다.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북카페, 각층 중앙휴게실에 빈백 소파, 해먹, 그네 등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직원 간 보다 수평적이면서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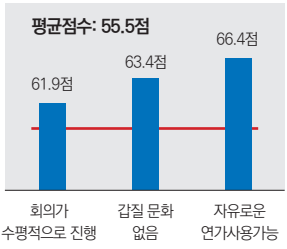
또한, 근래 들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방식을 추구하는 MZ세대 직원들의 확대 추세에 맞춰 자유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고, 직원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1인 사무공간도 마련하는 한편, 곳곳에 공간 구애를 받지 않고 외부와 바

로 소통할 수 있는 화상 회의실을 다수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시간적 여유도 기대되고 있다.

세종청사 이전 이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간혁신이 조직 내 혁신 및 소통과 직원의 만족도 증가 등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❶ 조직내 수평적이고 편안한 소통이 원활해지고, 조직 분위기가 관공서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부드러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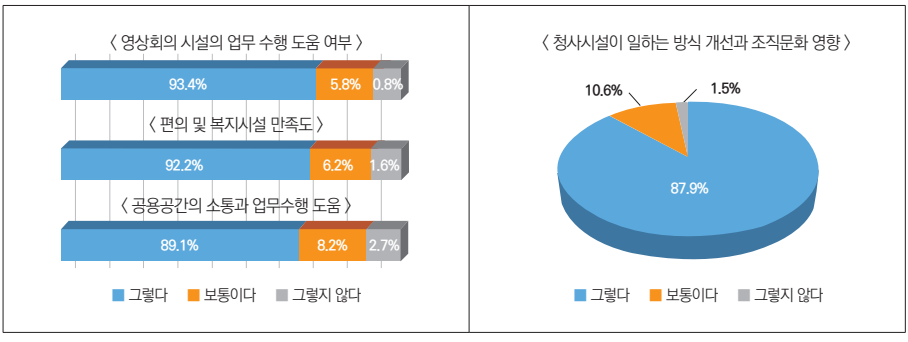
| 수평적 조직문화 응답 항목 |



청사 이전 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①수평적인 회의 진행', '②갑질문화가 없음' '③자유로운 연가 사용 가능' 등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등 사무공간의 혁신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❷ 청사 이전 후, '21. 10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청사에 대한 사무공간, 휴게공간, 영상회의시설 등에 대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새롭게 구축된 근무 환경이 일하는 방식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중기부 세종 청사 근무환경에 따른 업무 개선 효과 설문조사 |



향후계획

사무공간이 단순히 직원들이 일하는 물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와 업무 성과로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공간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인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해 1차로 수렴한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근무방식을 추구하는 MZ세대 직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입한 "스마트 오피스"의 운영 현황('21.12월말 예정)을 분석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웹오피스가 중기부에도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정부 정책에 맞춰 건물관리소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공간의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건물관리소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금년 내 충전설비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밖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설비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며, 여성 공무원과 청사 노동자가 더욱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간혁신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다른 부처와 더욱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정부 내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이 한 단계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

장○○ 커리어 파트너 대표

제가 가본 정부기관중에 제일 혁신적인 사무공간입니다. 특히 북카페는 팁스타운에 온 것 같이 뭔가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TV 프로그램 '런닝맨'을 여기에서 촬영해도 좋을 만큼 재미있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조합 위원장

장관님과 담당부서에서 새롭게 조성된 세종 청사의 사무공간, 휴게실, 회의실, 북카페 등 모든 공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

대전청사에 근무할 때는 회의실이 부족하고 직원들과 잠시 만나 편하게 얘기할 곳이 없었는데, 현재는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없고 근무환경도 정말 쾌적한 것 같아 좋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비대면경제과 **강**○○ 주무관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회의실에서 언제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고, 업무 중 언제든 힐링이 가능한 충분한 휴게공간, 나른한 오후 커피 한잔으로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손님 마중 카페까지 정부청사 중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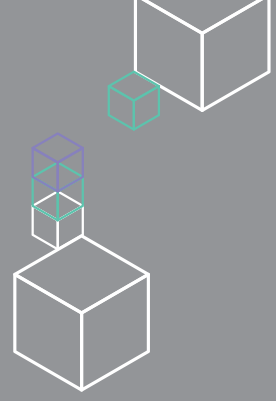
기타사항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21.7.26, 중기부 세종 이전 기념식)

중기부 출범은 혁신 벤처를 키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으며, 단순히 근무 공간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1.8.31, 중기부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는 기존 관공서와는 다르게 직원들 근무환경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간배치가 잘된 거 같습니다.



2021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II

충청남도

[업무공간 혁신 분야]

1 도입배경

- 충청남도는 민선7기 출범이래 현재까지 도정 중점 과제로 행정혁신,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업에 적합하도록 민·관 협치형 혁신공간을 구성했다.

- 민·관 협치형 혁신공간(충남내포혁신플랫폼)은 2016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공모를 통해 건물의 정체성 확립을 하였고 충청남도는 정부 주요쟁점 과제 중 하나인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기반이 되는 충남내포혁신플랫폼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받고 총 사업비 134.9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에 본격 추진하였고, 2021년에 준공하였다.

- 2018년 충청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현 공동체정책과)에서는 외부 전문가(공공건축가 등)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혁신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업무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기존 틀을 깨는 수평적 자리배치, 책상 파티션 및 사무공간 간의 칸막이 제거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오픈라운지, 코워킹라운지 마련과 입주기관 소통·협업을 위한 오픈 회의공간, 휴게공간 마련이 주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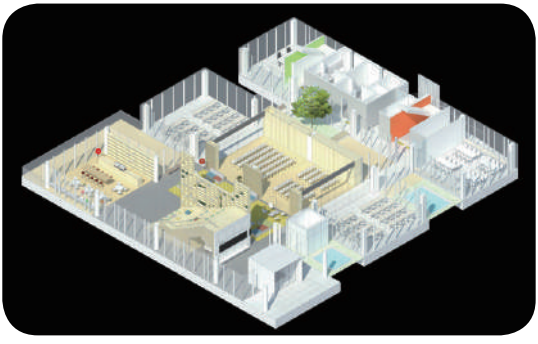
| 그림1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외부 전경 |

2 사무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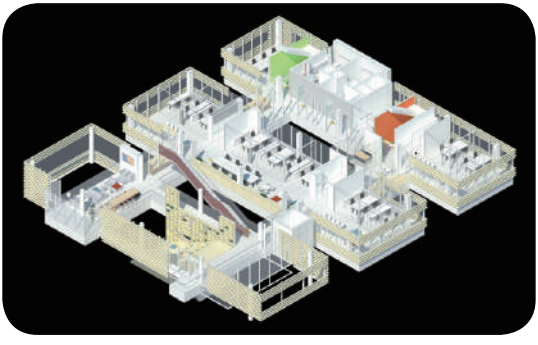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3 설계개요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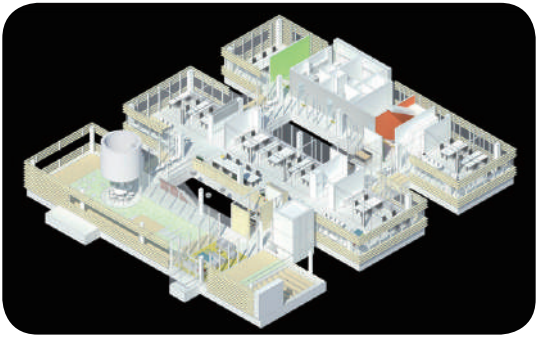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0개 입주(예정)기관, 100명, 2,939.87㎡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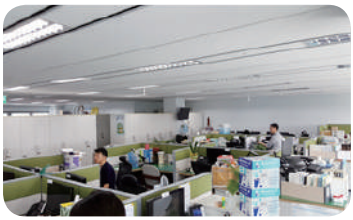
| 그림2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최종 설계도면 |

4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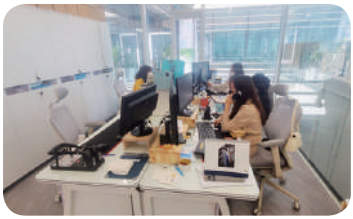
칸막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사무공간을 탈피하여 캐비닛은 최소화하고 파티션을 제거하여 소통과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급과 무관하게 자리를 배치하였으며, 낭비되는 공간을 최소화하여 각 기관에서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소통의 공간(회의실), 휴게공간, 만남의 공간 등을 만들고 소통과 협업, 집중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용무가 있을 때만 방문하는 기존 관공서가 아닌 도민 모두가 언제든 방문 가능한 열린공간 조성하여 민·관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소통을 저해하는 파티션과 콘크리트 벽은 NO!” 소통과 협업 YES!

통상적인 사무공간의 칸막이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 장벽처럼 부서 간 경계 역할을 하던 콘크리트 벽을 통유리로 대체하여 개방감을 높였다.

| 그림3 기존 칸막이가 있는 보편적인 사무공간의 모습 |

| 그림4 기존 칸막이를 유리로 대체하고 파티션을 제거한 현재 모습 |

그 결과 기존에는 파티션에 가로막혀 일어서지 않으면 대화가 어려웠던 답답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다. 파티션을 없애자 앉아서도 자연스럽게 옆, 앞 사람과 대화가 늘어났다. 서로 얼굴을 보며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떤 주제에 대해 쉽게 다른 팀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기관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 벽을 통유리로 대체하여 팀원 간의 물리적 거리에서 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유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내 일·내 기관의 일만 몰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소통도 늘어났다.

나. “모든 사람의 공용공간! 업무공간 안에 공용공간!” 공간의 활용도 제고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립되었으며, 1층은 도민 및 각 단체들의 열린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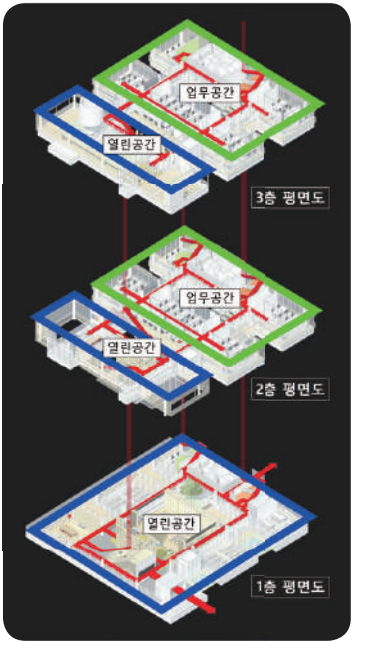
2층과 3층은 업무공간과 열린 공간이 혼재되어 “업무의 효율성”, “도민을 위한 개방

성” 등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반영시켜 집중과 개방의 공간을 구성하였다.

특징으로는 업무공간의 단절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 업무 공간 앞에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상시 협업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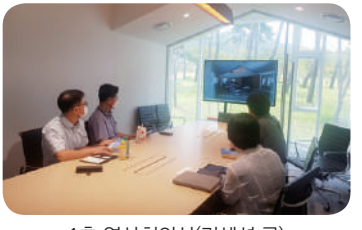
그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업무를 공유하여 새로운 결과물로 창출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다가갈 수 있었다.

따라서 당초 기대하였던 집중과 개방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건물의 주된 컨셉인 수평적 조직, 개방적 조직, 휴게 공간뿐만 아니라 업무공간에서도 상시 접촉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경직된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다. “다양한 공간, 다양한 아이디어 번뜩!” 다양한 창의 공간 구성

회의 성격, 규모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건물 곳곳에 각양각색의 회의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하였다.



1층 영상회의실(리셉션 룸)



3층 옥상 정원 원형 회의실


2, 3층 공용 회의실


3층 회의실

| 그림5 각 층별 회의실 현황 사진 |

라. 「우연한 만남이 곧 혁신!」 오픈 휴게공간

창조적 역량 증진을 위한 공간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구성원 간의 우연한 만남을 조장하면서 필요시 집중 근무나 전화, 토론, 영상, 사색, 집중 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각층별 곳곳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들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공간을 구조화하였으며 1, 2층 휴게공간 안에 사무적 복합공간, 3층 오픈 라운지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을 열린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각 층 복도에는 테이블 의자를 마련하여 언제든지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중에 단체 구성원들끼리 자유롭게 우연히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1,2층 사무공간 앞 휴게공간


3층 오픈라운지


2층 오피스 라운지


1층 코워킹 라운지

| 그림6 우연한 만남이 가능한 다용도 창의·휴식 공간 현황 사진 |

마. “입주 기관뿐만 아니라 범도민적 차원의 개방형 소통 공간 및 시설 확보”

내포혁신플랫폼은 입주 기관뿐만 아니라 신생 기관·단체들의 초기 자립을 돕기 위해 인큐베이팅실을 마련하여 내부에 공용으로 이용하는 캐비닛을 설치, 사용이 끝나면 보안 설정이 초기화되어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 결과 캐비닛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답답한 기존 시스템에서 순환 시스템 방식으로 개선되어 제한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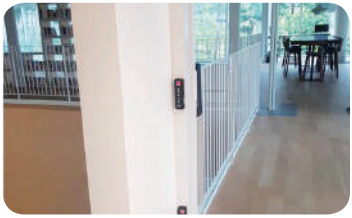
또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하부 공간을 확보한 캐비닛을 여성휴게실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하였으며, 출입문 개폐 버튼 추가 설치를 통해 일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공간 설계에 반영하였다.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인큐베이팅실


휠체어 이용자 배려 캐비닛



여성휴게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자동문 개폐 버튼 추가

| 그림7 임산부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간 사진 |

5 추진과정

내포혁신플랫폼 건립계획 수립 (2016.7) → 실무추진단 벤치마킹 실시 (2017.11.) → 설계사업자 선정 (2018.6.) → 기본시실설계 용역완료 (2019.5.)

2016년 1월에 도민협력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적 학습·토론의 통합거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 6월 내포혁신플랫폼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년 11월부터 「내포혁신플랫폼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무중력지대G밸리, 서울 시민청, 서울 50플러스 등 스마트 오피스를 방문하여 공유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기존 공간을 어떻게 하면 혁신공간으로 바꾸어 실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설계용역완료 (2019.5.) → 사업변경 (사업비 110억→139억) (2019.11.) → 실무관련 자 벤치마킹 실시 (2020.3.~) → 충남내포혁신 플랫폼 개관 (2021.7.)



2019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 그리고 실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2차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스마트 오피스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내부 직원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1년 6월에는 충남내포혁신폼 준공,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개관식을 거행하여 현 건물이 들어섰다

6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가. 달라진 점과 기대 효과

기존 사무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막상 환경을 조성하고 난 뒤 생활해 본 결과 더욱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업무 생산성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른 사무실에 비해 직원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대폭 늘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도 추가 의견도 있었다.

특히, 조직문화가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듯, 지정된 좌석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직원과 가까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토론하며 협업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의 변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직적·권위적 문화에서 탈피해 서로 배려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 지속 발생하는 오픈형 휴게공간 등이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주도적인 의견이다.

나. 향후 과제

입주 기관들의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개방형 공간, 수평적 구조를 추가 설치 예정이고 11월 개소 예정인 카페를 문제없이 추진하여, 북카페, 사고의 공간, 도민들의 편의 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구비 등 스마트오피스의 요소를 추가 도입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통·협업 촉진의 개방적·효율적 사무공간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카페 조성 사업 추진(11월 중 개소)



카페와 오픈라운지 북카페

특히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은 자유로운 소통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북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때로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책을 보고,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이 책상에 오래 앉아 일하는 것보다 업무 능률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는 각 입주기관들이 각 기관의 특성과 유익한 책들을 공유할 예정이며, 음료를 마시며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또 하나의 사고의 공간이 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내부 직원

(“수평적이고 개방적이며 힐링의 공간이에요”)기존 사무공간은, 눈높이만큼의 칸막이가 쳐져 있고 하얗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직원과 부서 간의 장벽을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개관한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의 근무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칸막이가 없고 서로 마주 보며 일하기 때문에 대화도 많아졌고, 특히 부서 간의 답답했던 벽을 투명한 유리로 교체한 덕분에 부서 간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와 단체 간의 사이가 돈독해질 것 같아요. 또한 경계가 없는 책상 배치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발달해 입주기관들의 분위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조만간 개소를 앞두고 있는 카페 또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연과 친화적으로 만든 카페로 바로 앞 오픈 라운지에 앉아 홍예공원 호수를 바라보면 힐링 될 것 같습니다.

입주 기관

(“혁신을 디자인하는 공간이에요.”)사무와 쉼터가 공존하는 혁신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도정과의 협치 거버넌스에 기여할수 있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장소가 있어 도민들도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시야가 탁트여 공간 곳곳이 너무 아름다워 없던 일할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건물로써 일의 능률이 더욱 오를 것 같으며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나가면서 만나고 부딪치고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도　민

(“지역주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충남내포혁신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1

층 열린 공용공간(다목적회의실, 오픈라운지, 코워킹라운지)을 지역주민, 신생단체(기관)를 위해 개방했다는 점이에요. 다목적 회의실은 공개적인 행사에 적합했으며, 오픈라운지·코워킹라운지 등은 휴식도 할 수 있는 장소로 기존 건물에서 보기 드문 구조여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 1층 공간은 기관 간의 미팅, 인근 학생들의 스터디 공간, 강의를 위해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직원들도 간단한 모임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또, 앞으로 운영될 카페에 지역주민과 인근 공공기관 직원들이 숲속에 온 듯한 착각을 만드는 자연경관을 벗 삼아 맛있는 커피와 함께 휴식을 즐기시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열린 공간 활용 사례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3차 집행 위원회"
('2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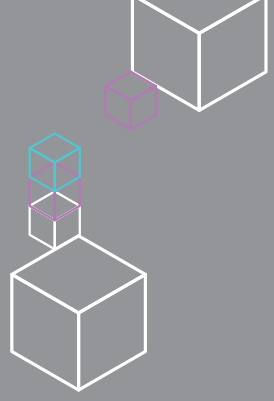
"충남자치분권포럼 라운드 테이블"
('21.9.13)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1.9.17)



"청년의 날 기념행사"
('21.9.12)



2021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III

충청북도 청주시

[업무공간 혁신 분야]

1 도입 배경

- 2014년 7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을 이루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였다. 중부권 핵심도시로 거듭날 큰 도약과 함께 청주시의 위상에 걸맞게 기존 2개의 구(區)에서 4개의 구(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며, 통합 당시 신설 구청을 옛 청원군 지역에 건립한다는 청주·청원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흥덕구청사"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원에 건립이 추진되었다.

- 세계 주요 기업들의 공간혁신 사례로 공간 구성이 조직 문화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2019년 4월 공간혁신 첫 모델인 **비채나움**("비우고 채우고 나누어 새로움이 움트다")을 개소한 경험이 있었다.

- 직급과 상관없이 공유 좌석제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업무 여건을 조성한 경험으로 우리 시는 『흥덕구청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구청 같지 않은 구청, 주민에게 친숙한 구청,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춘 구청을 건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공간 혁신을 도입하게 되었다.

- 3개 층이 "서가"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져 각 부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사무 공간의 바닥 마감재를 OA플로어로 선택하여 고정된 자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추진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 구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업무공간과 분리된 공연장이나 카페, 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어 찾아오는 고객이 만족하고 직원이 소통하는 혁신적인 청사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2 사무실 위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

3 설계개요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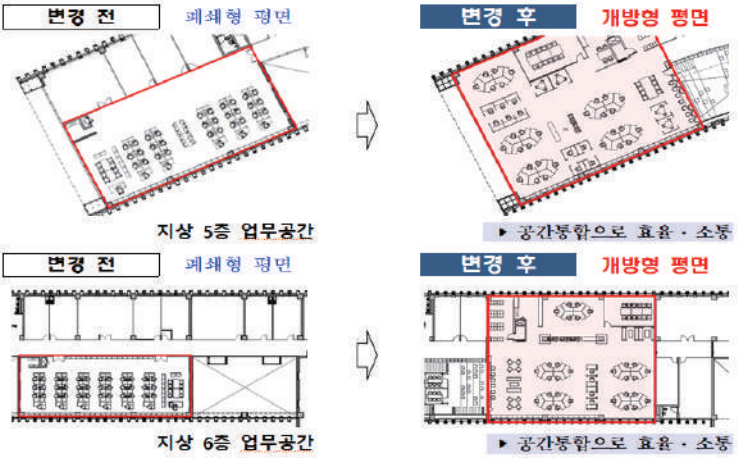
- 규　　모 : 대지면적 31,062㎡(9,412평) / 연면적 14,938㎡(4,527평)
- 공사기간 : 2018. 12. ~ 2021. 05.
- 공간구성 : 업무공간(8개 부서) + 주민편의공간(어린이집, 카페, 공연장, 체육관 등)

① "에코박스"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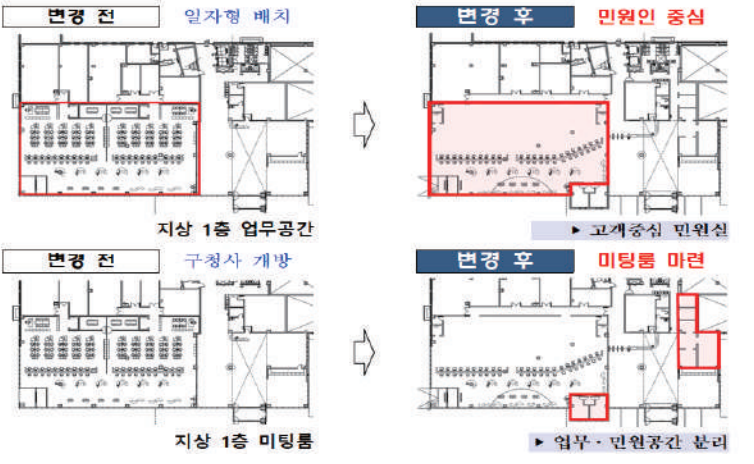
※ 기존 조경 식재 등 외부(일명 "에코박스")로 구성된 공간을 내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 부서 간 교류 확대, 휴식, 커뮤니티, 협업을 위한 회의 등이 가능

② 사무공간 재배치



※ 딱딱한 분위기의 업무 공간을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부서 간 교류 확대, 휴식, 커뮤니티, 협업을 위한 회의 등이 가능

③ 민원 공간 재해석



※ 대립형 민원대를 개선 및 사무 공간 통합, 민원상담실 및 주민회의실 설치

4 주요 특징

협업과 소통이 활발한 조직문화 조성

- 당초 외부로 계획되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공간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고 3개 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우연한 마주침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업의 장이 되면서도 휴식과 대화의 장소로 거듭났다.

- 건물 서측의 4층부터 6층까지의 공간을 사용하는 구청 산하 각 부서들이 모두 하나로 통합된 공간에 접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 친목도모 및 휴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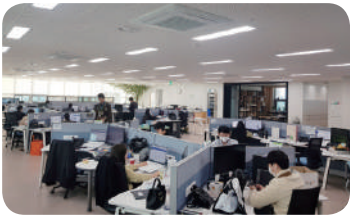
- 거대한 계단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강연이나 행사의 진행도 가능할 정도로 그 쓰임새의 폭이 매우 넓다.



4~6층 통합의 서가형 공간 "도담다담"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업무 공간

- 투박한 벽체로 막히고 구획되던 사무 공간에서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평면 구성이 가능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무공간



구청 외 직원도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센터"

사무공간과 분리된 주민 편의 공간 마련

- 건물의 서측에 위치한 사무 공간과 구분되도록 동측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다. (카페, 공연장, 문화교실, 다목적 체육관 등)



카페



공연장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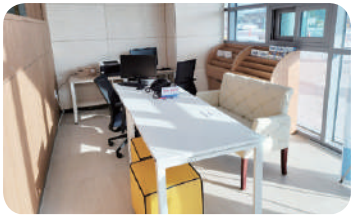
다목적 체육관

방문 민원인 이용 편의 제고

- 행정업무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각 층 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1층에서 적절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민원상담실과 회의실, 모자휴게실 등을 설치하였다.




민원상담실



민원상담 & 회의 공간



모자휴게실

5 추진 과정

공간혁신컨설팅	벤치마킹	최종(안)확정	설계변경&공사	개 청 식
공용공간 증대, 만남 유도 민원인 중심 등	본태박물관, 빛의 벙커 스페이스닷원 등	서가 도입, 평면 재배치 등	구조보강, 마감재 변경, 예산확보 등	흥덕구청 신청사 개청
2019. 6.	2019.10.	2020. 3.	20. 3.~21. 5.	2021. 7.

- 2019년 6월 우리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공간혁신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공간은 줄이고 공유공간을 최대화하여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조화로움을 유도하고자 수 개월간 TF팀을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계 변경을 추진, 공사에 반영하여 마침내 2021년 7월 지금의 흥덕구청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새롭게 지어진 흥덕구청사는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던 사무 공간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 기존에 비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 건물 내부에 있으면서도 우연한 만남 속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이룰 수 있다.

- 어렵고 낯선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한 구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위민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과 달라진 청사, 구청 같지 않은 구청, 친숙하고 창의적인 구청으로 공공기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목소리

행정지원과 **박**○○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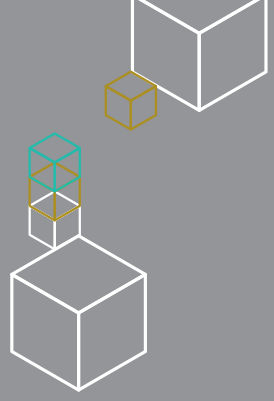
"원래 알던 사무실의 이미지와 달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고,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민원지적과 **조**○○ 주무관

"공간 구성이 재미있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져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인다."

건축과 **이**○○ 주무관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의 서가형 공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업무 특성상 협의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 간 생각을 나누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1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IV

국민연금공단

[업무공간 혁신 분야]

1 도입 배경

● (공간확보) 국민연금공단 본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행복연금관을 신축하여 전주로 이전한 이후, 국민누리관, 글로벌기금관을 순차적으로 신축함으로써, 3개 사옥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타운」을 조성했다.

- CEO는 국민연금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며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 2그루를 기증했고, 국무총리 등을 초청한 글로벌기금관의 준공식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타운(국민공모 선정)」을 완성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이전 이후 늘어난 본부 인력 대비 부족했던 면적(표준면적 대비 75% 수준)이 추가 확보됨으로써 공간혁신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옥명칭	행복연금관	국민누리관	글로벌기금관
연면적	32,236㎡ (10층/B1층)	19,030㎡ (8층/B1층)	20,389㎡ (9층/B1층)
배치부서	기획, 연금, 감사	복지, 연구원, 디지털	기금운용

국민연금 타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주목



● (인식공유)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 중심의 기관'으로의 쇄신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20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쇄신대책」을 수립, 새로운 공단의 출발을 선포했다.

- 업무공간의 단순 재배치가 아닌 공간 활용성, 편리성, 복지 및 건강증진 등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간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 혁신'이라는 쇄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ISSUE 점검
- 경영의지 확산 및 공유 / 부서간 소통 및 협업 강화
- ESG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환경구축
-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건강 관리 등 직원안전 강화
- 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 사옥개방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눠쓰는 공간 조성
-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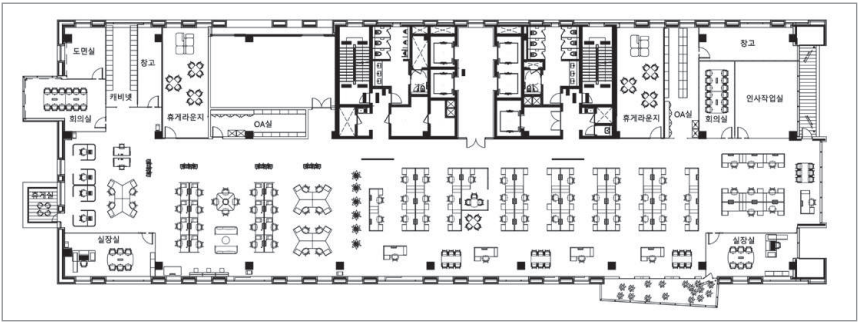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혁신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물리적 공간 혁신
- 개방적/수평적/민주적 업무환경 조성
-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융합공간 구축
- 구성원을 배려한 안전한 복지공간 마련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간 조성
- 효율적 설계로 공간 및 원가 절감

2 사무실 위치

- (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등 3개 사옥

3 설계개요 및 도면

- (개요) 3개 사옥, 21개 부서*, 1,245명, 71,655㎡(21,675평)
  * 실 13개 / 센터 3개 / 본부 2개 / 안전관리단 / 연구원 / 준법감시인
- (도면) 행복연금관 7층(안전관리단 및 인사혁신실) – 대표층



안전관리단(28명 근무) ← | → 인사혁신실(49명 근무)

4 주요 특징

- 사무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본부 사옥 신축에 따른 사옥간/부서간 공간 조정을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간으로의 변화가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문화 등 사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혁신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공간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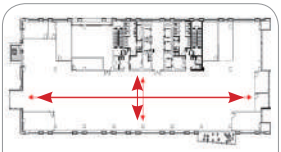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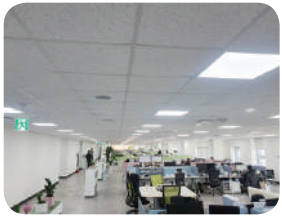
1) 개방형 소통, 협력 공간 조성	2) 공유공간 활용 및 효율화	3) 복지공간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4) 대국민 소통 및 서비스 개선
① 개방형 사무공간 ② 자율좌석제 운영 ③ 다양한 회의공간 ④ 다목적 휴게공간	① 공유공간 조성 ② 물품나눔 확대 ③ 공간활용 효율화	① 마음치유실 ② 건강관리실 ③ 인기카페, 폰부스 ④ 건강한 지구 만들기	① 대국민 소통공간 ② 지역 나눔시설 ③ 약자 배려시설

가. 개방형 소통, 협력 공간 조성

1) 막힘없는 공간, 막힘없는 소통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

- 복도와 사무실 간 복도, 동일층에 배치된 부서와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출입구에서 사무실의 좌우가 끝까지 보이도록 설계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직원간 책상 파티션도 최소화하여 일상속에서 좌우, 앞뒤 직원간 막힘없는 소통과 자연스러운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복도 및 부서간 칸막이 구획 (폐쇄적인 공간)	 복도 및 부서간 칸막이 제거 (막힘없는 공간)	

- 칸막이가 필요한 회의실 등 부대공간은 투명한 유리칸막이로 구획하고, 화장실 출입구 등 가림막이 불가피한 경우 다양한 컨셉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무미건조한 사무실을 경쾌하게 연출하였다.



투명칸막이




컨셉칸막이

2) 내 맘대로 선택하는 내 자리 (자율좌석제 운영)

- 민간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자율좌석제의 도입'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으로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장점보다 매일매일 자리를 옮겨야하는 눈앞의 번거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으리라.
-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좌석 배치계획·운영방안·우선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희망부서(안전관리단, 미래기획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함으로써, 자율좌석제를 성공적으로 정

착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업무환경 가상화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자리이동에 따른 업무제약을 극복하였다.

- 직급 및 업무 파트의 구분없이 좌석을 배치하고, 업무 스케줄이나 협업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도록 하여, 직급이 높은 부서원의 창가석 독점 및 수직적 위계질서를 물리적으로 방지하였다.
- 또한 단조로운 책상 모양 및 배치에서 탈피하여 일자형, 120°벌집형, 카페형 창가 스탠딩석, 모션데스크 등 다양성을 도모하였으며, 사무공간 중심에 자유로운 모임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안락한 쇼파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별도의 공간과 시간의 구애없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조로움을 피한 다양한 책상 모양과 배치

- 자유로운 자리 선택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이동식 서랍을 설치하고, 책상 위 개인책꽂이를 없애는 대신 공용책꽂이를 설치하였다. 집중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 직원을 위한 몰입공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집중업무공간을 사무공간 내 별도로 마련하였다.



자율좌석제의 단점을 보완한 집기와 공간 설계

3) 골라 쓰는 재미, 모이면 그곳이 바로 회의공간 (다양한 회의공간)

-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크기(대·중·소), 목적(전용, 공용, 특화), 방법(대면, 비대면(영상)) 등에 따라 회의공간을 다양화하였으며,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회의실 구조를 손쉽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이동이 편리한 집기를 사용하였다.
-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가볍게 모이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포켓형 회의공간을 사무실 구석구석에 조성하여 더 이상 전쟁같은 회의실 예약은 필요 없어졌다.
- 색상, 재질, 모양 및 집기 등 다양한 마감으로 회의공간의 재미를 더하고, 개방감을 느낄수 있도록 유리칸막이를 사용하였으며, 필기가 가능한 화이트보드 및 빔프로젝트 설치 등 회의의 성격에 맞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공용 개방 회의실





부서 전용 회의실



글로벌 홀



국제협력 회의실



영상 회의실

4) 우연한 만남이 가능한 휴게공간

- 휴게 목적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쪽잠자기, 수다떨기, 혼자 상상하기 등 다양한 컨셉의 휴게라운지를 각 층에 조성하였으며, 우연히 만난 동료와 차 한잔 할 수 있는 오픈

휴게실을 곳곳에 배치하고 실내 스마트가든으로 공기정화와 힐링타임을 즐기도록 배려하였다.

- 처마와 대청마루, 햇볕을 모티브로 하는 '한옥라운지(국송정)'를 조성하여 전통의 기능과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정겨운 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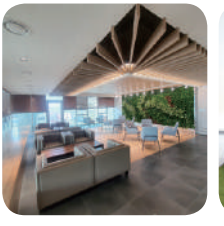

실내 스마트가든


상상마루


전망 휴게실


쉼·소통 라운지




한옥라운지


포켓 쉼터

나. 공간 활용 및 효율화

1) 같이 쓰는 공간, 나눠 쓰는 물건

- 부서간 협업, 프로젝트형 과제 수행, TF팀 등 단기 임시조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애자일존)을 별도로 조성하여 조직개편이나 임시공간 확보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던 공간조정 업무와 예산을 절감하였다.
- 업무 집중도 향상 및 공간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공간과 서비스공간을 분리하여 개방형 OA공간을 조성하였다. 복합기, 세단기 등 사무기기를 배치하고 수납장 및 탕비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부서내 집기를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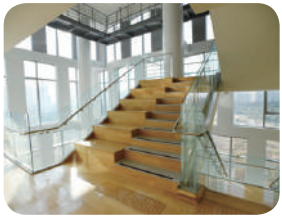



애자일 존


OA공간

- 사무공간 내 개인 쓰레기통을 없애고, OA공간 및 복도 등 공유공간의 기능을 확대했다. 공용 분리수거함 및 컴세척기 등을 설치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근로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였다.
- 로비 계단을 단순 동선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동'과 '머뭄'이 공존하도록 '디딤계단'이라는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직원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분리수거함



디딤계단

2) 그냥 허투루 버리는 공간은 없다.

- 본부 각 부서와 협의시 반발과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 캐비넷 및 창고의 축소였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더 이상 필요없는 서류가 가득하고, 사무용 비품은 지정된 장소 없이 사무실, 회의실, 창고 등 이곳저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 몸집줄이기 돌입! 불필요한 자료는 과감히 처분하여 OA공간으로 캐비넷을 전수 이전하고 비품을 최소화하여 창고에 물품을 정리하니, 눈에 보이지 않던 공간이 생기고 시각적으로도 사무실이 깔끔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었다.

- 허투루 방치되는 공간이 없도록 구내식당 앞 계단 밑 자투리 공간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로비 및 복도를 갤러리로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로비의 Dead Space에는 우편집중실과 창고를 만들어 부족한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 또한,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공간의 효율화를 위하여 바람을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다 갈수 있도록 옥상을 녹지로 조성하고, 한켠을 텃밭으로 만들어 채소키우기, 식물가꾸기 등 본부 직원들의 동호회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집기와 물품 몸집 줄이기


계단 아래 휴식공간


복도 갤러리


계단 아래 창고


로비 우편집중실


옥상정원·텃밭가꾸기

다. 복지공간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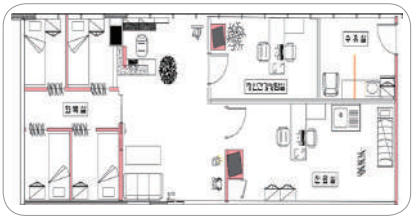
1) 마음 튼튼 (마음치유실 / 건강관리센터)

- 건강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울음 치료' 공간으로 마음치유실을 조성하였다. 아늑하고 은은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눈물나는 영상'을 보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 오롯이 집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수 있는 마음정리 공간이다.

- 이용이 불편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유명무실했던 기존의 양호실을 건강관리센터로 개편하였다. 건강관리실, 정신건강상담실, 수유실 등으로 확장·이전하여 격무와 펜데믹으로 인해 지친 직원의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마음치유실


건강관리센터

2) 몸도 튼튼 (체육시설)

-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실내 체육시설(피트니스 센터, GX Room) 및 실외 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풋살장)을 조성하여 직원의 체력증진과 건강관리를 지원하였다.



실내 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

3) 마시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간)

- 구성원 및 방문객, 지역 주민이 즐길수 있도록 사옥 로비에 인기 프랜차이즈(할리스), 지역 유명 카페(매드 에스프레소), 사회적 기업(NPS 36.5˚C)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를 유치하여 휴식과 미팅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프랜차이즈 카페


지역 인기 카페


사회적 기업 카페

-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무직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청소근로자 업무공간, 안내공무직 휴게공간을 별도로 추가 배치하고, 직원식당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탈의실을 조성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국민연금을 만들었다.
- 사무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방음이 보장되는 폰 부스를 구축하여,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오픈형 사무실에 대한 직원의 불만을 해소하였다.


공무직 공간


협력업체 공간


폰 부스

4) 건강한 지구 만들기, 건강한 생활 동참하기

- '사람'과 '지구'가 함께 건강해지도록 텀블러 자동 살균세척기, 분리수거함,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청소근로자의 업무량 및 탄소배출량 절감에 기여하였다.
-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피톤치드가 나오는 에어샤워기를 로비에 설치하여 실내에서 산림욕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텀블러 살균세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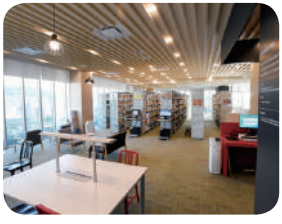

전기차 충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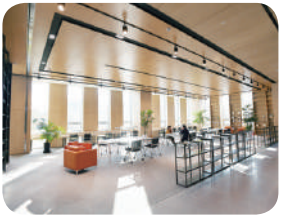

에어샤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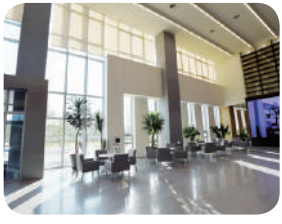
라. 대민소통 · 대국민 서비스 개선

1)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마음 편히 들어오세요

- '공단'만의 시설이 아닌 '국민'의 시설이 되도록 대민 소통과 서비스 공간을 정비하였다. 자유롭게 앉아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열린도서관(기금관 1층)'을 조성하였다.
- 사옥에 입주한 위탁·협력업체 직원이 공단 직원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금도서관(연금관 3층)'의 이용 범위도 확대하였다.
- 또한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하게 쉬다 갈수 있도록 로비 공간을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공단 방문의 문턱을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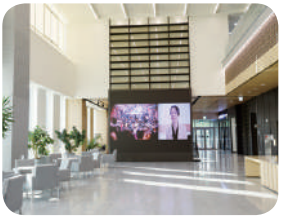

연금 도서관 (연금관)


열린 도서관 (기금관)


로비 소통공간

2)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해요.

- 별도의 홍보관 설치를 위한 예산과 공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관 로비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지역행사 안내와 행정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관 홍보에 국한되지 않는 대국민 서비스 공유자산으로 관리하였다.
- 직장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로비의 자투리 공간을 지역물품 직거래 장터로 제공,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였다.
- 본부 사옥 3개동 모두 BF인증을 받고, 대강당 휠체어 관람석,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다.


영상 디스플레이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휠체어 배려공간

5 추진 과정

외부 벤치마킹 ('20.하반기)	구성원 공감대 형성 ('20.하반기~)	공간조정 계획 ('21.1월)	공간 설계·공사 (~'21.8월)	시범운영 및 개선 (~'21.10월)
·공간 쇄신대책 수립 ·공공 및 민간 견학 및 자료수집	·공개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공간혁신 추진방향 설정 ·세부 추진사항 도출	·부서별 레이아웃 협의 ·순차적 공사·이전	·자율좌석제 시범운영 ·추가 개선사업

-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혁신'이라는 모토 아래, 외부기관(민간/공공)의 업무 및 민원공간 견학·벤치마킹을 하였고, 자료수집·분석을 통하여 우리 기관에 적용 가능한 공간 유형별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간혁신의 기본방향 및 취지에 대한 공개 설명회와 부서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아이템을 개발하여 공간 레이아웃을 결정하였다.

-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을 계획하고 소통과 협업이 일상화되는 근무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자율좌석제 등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간혁신을 위한 추가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6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나'와 '독점'을 위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간에서 '우리'와 '나눔'의 개념으로 생각이 확장되고 소통과 협업을 유도하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물리적 공간의 혁신이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 물리적 장벽이 최소화되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마주치고, 일상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 회의실, 애자일존 등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업무 지원공간과 마음치유실, 휴게라운지 등 마음의 안정 및 감정 회복을 위한 힐링 공간을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고 과정의 수고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사람중심의 기관으로 변화되었다.

- 또한, 단순히 직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을 배려하

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간혁신의 범위을 확장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

- 공간혁신 계획시 반신반의했던 기대효과는 긍정적인 결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했던 문제점 등은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영상회의실, 건강관리센터, 휴게라운지 등 현재 추진중이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만족도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를 대비하여 주민 공유공간 중심으로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간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가입지원실장

하루의 8시간 이상을 회사살이를 하면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다. 공간이 변하고 나니 벽면과 부서 간 칸막이가 나의 시야를 얼마나 막고 있었는지 느꼈다. 지금까지는 '굴속에서 생활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 없었던 OA공간으로 차마시러 가다 혹은 복사하러 가다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고 회의실이나, 휴게공간이 많이 생겨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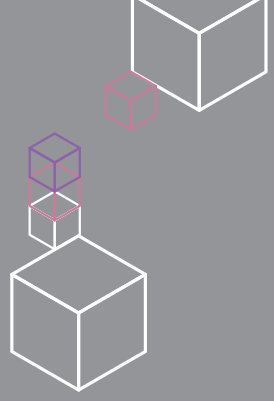
사각지대해소팀 B과장

입사동기가 카톡으로 사진 한장과 '어디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기집을 리모델링하고 자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회사란다. '우리 회사가? 정말?!'이라는 곳을 외치게 만든곳은 '마음치유실'이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가치유하는 곳이다. 올 한 해동안 본부 공간의 변화는 계속 진화하는 것 같다. 출근하면 로비에서 피톤치드 향기가 나를 반기고, 퇴근시간 해질녘이 되면 유럽의 작은마을을 보는 듯한 조망이 창밖으로 보인다. 그 뿐인가? 사옥내 취향이 다른 3군데 커피숍, 다양한 컨셉의 휴게실은 나의 사회활동을 더 활발하게 했다. 이전보다 밝아진 사무공간, 화장실 앞에 장식된 'The best gift is you!' 라는 문구를 보면 쳐지는 기분이 다시 업된다.

안전관리단 A대리

처음 '자율좌석제'를 들었을 때 솔직한 감정은 '귀찮음'이었다. 예상대로 자잘한 귀찮음이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책상 위 사물을 자주 옮기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 한달에 한번 자리를 바꾸기로 약속했다. 시행 첫날,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좋은 자리를 뽑은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짐을 옮겼고, 선택권이 없던 사람들은 납덩이를 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석달이 지난 지금, 단점보

다 장점이 더 많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조그마한 변화가 회사라는 딱딱하고 고착된 환경에 조그마한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근무장소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전환이 되고, 소속부서를 벗어나 일함으로써 타부서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협력도가 상승했다. 서로 대면대면했을 때에 비해 훨씬 성의있는 태도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마주치기 싫은 누군가와 자발적 거리두기가 가능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K대리는 자율좌석제로 쓸데없는 짐들을 버릴수 있다고 좋아한다. 딱히 짐이 줄어든 것 같진 않지만 본인이 만족하니 이 또한 장점이리라. 자율좌석제가 정착되면 더 많은 시너지가 생길거라 기대해본다.



2021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V

국립과천과학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분야]

1 도입 배경

- 2008년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은 연간 279만명('19년 기준)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과학관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계획은 연령과 성별, 국경,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과학관이 제공하는 전시, 교육, 문화행사 서비스를 포괄하여 사회적 환경 정비까지를 담고 있으며, 기본계획과 예산상황에 따라 2021년에는 교육관, 유아체험관, 편의공간, 중앙홀을 중심으로 시각·청각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2 사무실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110 국립과천과학관

3 설계개요 및 도면('21년 각 개선 공간별 면적)

-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1,672㎡(506평)
- 국립과천과학관 유아체험관 1,146㎡(약 347평)
- 국립과천과학관 편의공간(수유실 등) 100㎡(약 337평)
-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 1,865㎡(565평)

4 주요 특징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의 실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과학관 환경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먼저 다수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차장 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물품함을 설치하고, 출입구의 이동,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자동문 설치, 유아·노약자·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다기능 화장실 설계 시공 등 장애인, 유아, 노약자의 사회적 약자가 불편해 하지 않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편의물품(유모차, 휠체어 등)




출입구(미닫이, 기존) ⇒ 미닫이(자동) 교체


교육동 남,녀 장애인화장실 조성



중앙홀 출입구(정문, 후문) 자동문 설치를 통해 휠체어사용자 이동편의 증진

● 또한, 연간 40만명('19년 기준)이 넘는 학생들이 과학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의 경우, '08년 개관 당시부터 교육과 실험을 함께 수행하는 첨단교육시설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실험을 위한 전기, 급·배수를 위한 설비들이 강의실 바닥에 있어 그 위를 이중 바닥으로 덮어둔 상태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휠체어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역세스 플로어와 계단이 아닌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사로의 거리가 짧거나, 바닥재 노후화로 인한 불균형 등의 불편함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시급히 개선을 추진하였다.

● 또한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시설 보완 사항 도출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시설분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컨설팅'('21.3~7월)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과학관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간의 설계기준)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높이와 구조, 바닥년의 구조를 개선하였다.



안내데스크 개선 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안내데스크(개선 후)

- 성인이용자와 어린이 및 휠체어이용자를 고려하여 안내데스크 높이를 2단계로 제작·설치(출입구 방향, 전시관 방향 모두 적용)
- 휠체어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안내데스크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이상 ~ 0.9m이하로 제작
- 높이가 낮은 안내데스크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 확보

- 청각 및 언어장애 이용자,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담용구 사용이 용이하도록 안내데스크 상단은 평평하게 제작

● 또한 관람객의 주 이동수단인 에스컬레이터 시작지점 2개소(1층, 2층)에 스탠딩 사이니지(종합안내사인)를 추가 설치하여 전시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에스컬레이터 이동이 끝나는 지점과 동선이 복잡한 곳은 바닥에 방향 유도사인(고보라이트 활용) 추가하였다.



에스컬레이터 시작지점 종합안내사인



바닥 방향 유도사인

- 안내패널이 필요한 곳은 1,100mm 위치에 사인을 설치하여 주 관람층인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선



엘리베이터 측면 눈높이 안내사인 설치 전



엘리베이터 측면 눈높이 안내사인 설치 후

● 교육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이용자의 대부분인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 바닥을 제거하고 단일바닥으로 구성하여 평평하게 개선하였다.

- 강의실 바닥의 전기, 통신, 급·배수 공사를 실시하고, 이중 바닥재와 엑세스 플로어를 철거하여 단일 바닥으로 구성


이중바닥재로 구성된 강의실(개선 전)


평평하게 개선된 강의실(개선 후)

- 교육관 복도의 경우에도 일부 이중바닥이 되어 있던 곳을 개선하여 바닥 불균형을 시정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1개소, 남, 여) 설치를 통해 서비스 환경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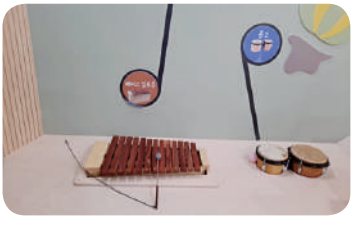

바닥 개선 복도(개선 후)


장애인 화장실 설치(개선 후)

● 또한 시각장애인도 촉감,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체험하고 휠체어 출입, 이동 접근 등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시관람 공간을 개선하였다.

- 청각장애인을 위해 촉각을 활용하여 사물을 인지해보는 전시품, 시각장애인을 위해 청각을 활용하여 전시품을 체험해보는 등 다양한 전시 연출 방법을 통해 장애인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품 개선 노력. 아울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전시대 디자인을 통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


촉각을 활용한 전시품


청각을 활용한 전시품



휠체어 접근성 용이, 어린이 키, 높이 등을 고려한 안내데스크



친환경 소재, 모서리 제거 등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시물 설치

- 유아, 어린이 신체, 정서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환경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유아체험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용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없는 환경 조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 유아들의 정서, 안전 등을 고려한 쾌적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디자인 조성



어린이 신체 및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어린이 맞춤형 세면대 설치



어린이 신체를 고려한 어린이 전용 맞춤형 화장실 환경 개선

  – 장애물없는환경(BF) 기준을 고려한 출입문 확보, 바닥 단차 제거 등을 통해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편의공간(수유실 등) 확보



바닥 단차가 없는 BF(Barrier Free) 환경 조성



쌍둥이 유모차도 출입이 가능한 수유실 출입공간 개선



의료용 침대 이동이 가능한 의무실 출입공간 개선 및 픽토그램을 활용한 인지성 확보



좁은공간의 어려움으로 인해 벽면을 활용한 유모차 보관장소 개선

● (민원안내 용이성) 누구나 직관적으로 전시관, 화장실 등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홀 벽면에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활용한 슈퍼그래픽 사이니지를 설치하였다.



슈퍼그래픽 사이니지 설치 전



슈퍼그래픽 사이니지 설치 후

- 가독성인 좋은 폰트(윤고딕체)를 사용하였으며, 짙은회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제작(채색대비를 높임)하여 인지도 및 가독성을 높이고, 광택이 없는 마감재를 선정하여 조명 반사에 따른 인식 저하를 최소화
- 외국인 관람객을 고려해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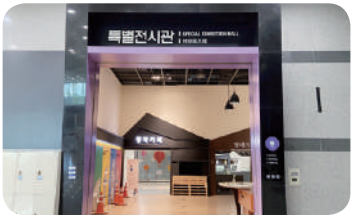


가독성 좋은 폰트, 색채대비 높은 안내사인



국문, 영문 혼합 안내사인

- 각 전시관의 명칭이 높은 위치에 있어 사인물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전시관 입구 눈높이에 각 전시관에 대한 정보를 대표이미지와 글자로 표기하여 추가



눈높이 위치에 전시관 정보 추가



전시관별 대표이미지, 전시관 정보 표시

- 전시관별 컬러를 지정하고, 각 전시관 파사드 및 종합안내패널에 적용하여 빠른길찾기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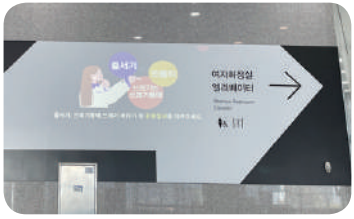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앞 종합안내패널(각전시관 컬러지정)



전시관 파사드 컬러적용

- 움직이는 픽토그램을 벽면에 투사하여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등 기본적인 공공질서 정보를 그림으로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


1층에 설치된 움직이는 픽토그램


2층에 설치된 움직이는 픽토그램

● (UD 확산가능성)

국립과천과학관은 어린이 이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전사고 역시 어린이 이용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용자 특성을 고려할 때, 과천과학관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사업은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개선과 함께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이용도 개선하는 넓은 의미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은 새로운 관장(이정모 관장, '20.2월 임명) 취임과 함께 '공유'를 주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과학관 사업 운영계획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은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시설뿐만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 대상의 점자 교구, 청각 장애인 대상의 수어 과학 해설, 과학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과학 나눔 사업 등 과학관 고유의 콘텐츠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다.



별자리 점자퍼즐(시각)



비대면 수업 및 수어 통역 장면(과학 동행 이야기)

국립과천과학관은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조성을 지속해 나가고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과학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추진 과정

- 과학관은 2008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관람객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개관 13년차의 건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나 장애물없는 환경(BF)의 충족하는 기준의 시설을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과학관은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시설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누구나 차별없이 과학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 과학관 중앙홀 웨이파인딩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관람객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학관의 동선유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2020년 5월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과학관 내 중앙홀 사인시스템개선사업을 추진하여 9월에 완료하였다.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2020년 11월에 고보라이트, 무비라이트를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며, 중앙홀 안내데스크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높이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12월에 완료하였다.

- 또한 교육관의 강의시설은 실험 중심의 프로젝트형 강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단순히 교육시설을 보완한다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과학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강의실의 전기, 통신, 급·배수공사를 새로이 실험 중심의 강의에 맞게 재설계하는 한편, 보행 약자들이 교육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닥의 턱을 제거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유니버셜 디자인적인 측면의 설계를 '20년 연말까지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반영하여 '21년 4월부터 7월까지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 교육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과학관 직원들이 매일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시공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개선을 마무리하였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2020년 유니버설 디자인의 물리적 적용뿐만 아니라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에서 차별과 장애 없는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7월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장애물 없는 환경(BF) 조성을 위해 컨설팅용역을 추진하고 시설환경에 대한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중장기적(5년)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6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존에 과학관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를 비롯한 비장애인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도 도움을 주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전시 관람 및 시설 사용에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 교육, 행사 등 과학문화 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과천과학관의 장애없는 서비스(BF) 5개년 계획 및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교육문화과 **고**○○ 사무관

"코로나가 잦아드는 '21년 겨울부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내용의 과학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실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육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흡하지만 이번의 개선이 그 시작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과학관의 직원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장애인과 과학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과학관 콘텐츠가 더욱 내실화한다면 '모든 사람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인 쇄 : 2021년 12월
발 행 : 2021년 12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협업정책과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Tel : 044-205-2242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